

담양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

담양딸기 수출플랫폼 구축
2024년까지 100억 투입
스마트 육묘시설 등 확충

담양군은 11일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담양군의 ‘프리미엄 담양딸기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선정, 시·군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

화하고 향후 지속성과 확장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 하는 공모사업이다.

선정된 담양군의 ‘프리미엄 담양딸기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은 자체 개발한 ‘죽향’, ‘메리퀸’, ‘담향’ 딸기의 육묘단계 부터 스마트팜 생산, 가공, 유통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담양군 내 스마트 육묘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딸기 생산 및 가공, 유통, 수출이력 관리를 통한 담양딸기 글로벌(Glocal) 플랫폼을 구축해 디

지탈 농업의 혁신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담양군은 이번 사업의 추진이 완료되면 담양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지역 내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양 프리미엄 명품딸기의 6차 산업화를 이끌어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담양딸기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나주시-교육청,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협약

나주시는 지난 11일 나주교육지원청과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로컬푸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우선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2학기부터 다시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 학교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시범 공급한다.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지속해서 도모하고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 학교 텃밭 운영 활성화 등 각종 협력사업도 병행, 추진

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민선 6기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나주형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주요 농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가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안정된 판로·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인 시민은 합리적 가격에 품질 좋은 식탁 먹거리를 받는다.

출하농가 조직, 기획생산 등 중간지원조직인 나주시 공공 급식 지원센터는 농가 585명을 조직화해 로컬푸드 직매장, 협력매장, 공공 급식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디지털 트윈 플랫폼·기반 데이터 구축 박차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7억 확보

장성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펼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및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사고 발생을 예견하는 등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대안을 수립한다.

장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분야에 ‘엘로우시티 장성!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를 응모해 선정됐다.

사업비로 확보한 14억원(국비 7억원)은 기반 데이터 구축과 행정 활용모델 개발에 투입한다.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 사업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성군의 데이터 구축 목표량은 총 518.5km로, 지역의 지리·문화·인문학적 특성을 망라해 디지털 트윈 국토기반 플랫폼에 구현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축적한다.

아울러 ▲도시 디자인 ▲빈집 확인 및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악취·오염물질 측정 실시간 모니터링 ▲관광 시즌 주차 안내 ▲도시 계획(재생) 시뮬레이션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현지 확인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성군청 전경.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정문이 눈길을 끈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활용 모델을 개발한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초 디지털 트윈의 기초 자료가 될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3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에 들어갔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 및 지하 시설물의 위치와 연식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장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

타이머폭 보급·금속배관 교체

강진군이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타이머폭) 보급사업’과 ‘LPG용기용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타이머폭은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중간밸브를 닫아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안전기기로 과열이나 화재,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과 경로당 등이다.

LPG용기용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편다.

자부담 5만원만 납부하면 가스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준다.

신청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가스는 편리한 만큼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308가구에 타이머폭, 200가구에 금속 배관을 각각 설치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백신 1차 접종률 60% 넘어서

3만7664명 마쳐...2차는 28%

화순군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었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기준 군민 3만7664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전체 인구 6만2522명 대비 1차 접종률이 60.2%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군민은 1만7791명으로 접종률이 28.5%로 집계됐다.

화순군은 지난 6월3일 1차 접종률 30%를 처음으로 넘겨 당시 백신 접종에 미온적이었던 사회분

위기 속에 주목을 받았다.

화순군은 본청 부서와 읍면 간 대응 체계, 이장·반장·부녀회장 등 민관 협력, 체계적인 모니터링단 운영,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 것은 군민들과 이장·반장·부녀회장 등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 덕분이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장흥군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생태환경 관광자원 활용 탄력

장흥군 탐진강수산연구센터가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됐다.

장흥군은 국가하천인 탐진강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멸종위기종 등 각종 토종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탐진강수산연구센터를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을 추진해 이번에 성과를 올렸다.

장흥군은 이를 계기로 탐진강의 자연생태 환경

을 되살리고, 탐진강 생태환경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확보해 탐진강 자체를 생태환경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지정 생물자원보전시설은 전국에 21개로, 대부분 국가 및 대학의 연구기관이다. 그런만큼 장흥군 탐진강수산연구센터의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은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깍지개’는 장흥 탐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종으로 가치가 크다. 예

전에는 낙동강과 거제도 등지에서도 발견됐지만 수질 오염과 저수지 축조에 따른 서식처 소멸로 깍지개가 절멸돼 현재는 탐진강에서만 볼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탐진강수산연구센터가 탐진강의 멸종위기종과 생물자원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계기를 마련했다”며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내수면 어업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사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